



오늘의 날씨 | 흐림 | 기온 1℃/7℃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음력 12월 18일)

기독일보

석간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722-8165

제 972호



“평창 화이팅!”

임원 위촉식을 마친 2018평창범국민코리아인기독서포터즈단 임원과 단원 300여명이 주요빙상경기가 열리는 아이스아레나빙상경기장 앞까지 평화행진을 하기 위해 집결해 있다.

기독서포터즈단 ‘평화행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 아이스아레나경기장까지 참가국기 들고 행진

평창동계올림픽이 20여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2018 평창범국민코리아인기독서포터즈단(대표총재 이영훈 목사, 상임공동단장 유만석·유순임 목사)이 지난 15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에 위치한 강릉중앙감리교회(담임 이철 감독)에서 강릉아이스아레나까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평화 대행진 행사를 진행하고 성공기원 연합성회를 가졌다.

기독서포터즈단은 이날 오전11시 강릉중앙감리교회당 예배실에서 1차 임원 200여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함께 참여한 기독서포터즈단들 400여명이 함께 ‘VICTORY! PEACE & LOVE’란 응원 스티클 후드를 목에 두르고 올림픽 참가국기 90여개와 기독서포터즈단기 200여개 등을 든 채 11시 30분부터 중앙감리교회 앞에서 5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피겨와 쇼트트랙 경기등 주요 빙상경기가 열리는 아이스아레나경기장 앞까지 평화행진을 시작했다.

이들 기독서포터즈단 단원들은 이날 아레나빙상경기장 앞까지의 평화행진과 연합성회 등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적 개최가 이뤄지고, 민족의 복음화 뜻이 성취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결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치러지는 국내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안전하게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고, 성실한 자원봉사와 스포츠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다짐하자는 취지를 갖고 활동을 시작한

다는 선언과 출범을 한 것이다.

이날 평화행진은 선두에 상임고문인 민승 목사, 고문인 전용재 전 기감감독회장, 고문 안명환 전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순영공동총재 이건호 예장중앙총회장, 상임총재 이철 강릉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공동총재 서석근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문상주 범국민코리아인기독서포터즈단 상임의장 등 주요 임원들을 중심으로 참가국기와 기독서포터즈단 깃발 및 응원용 대형 스티클문구 현수막 등을 든 채 진행됐다.

“올림픽은 성공으로 민족은 복음화로 ‘단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하며 아이스아레나경기장앞에 도착한 기독서포터즈단 단원들은 주요 임원들의 인사말 이후 고문인 예장대신 증경총회장 노문길 목사의 대표기도와 공동진행위원장인 남동제 일교회 담임 한규섭 목사와 강릉시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용철 목사가 평화행진선언문을 낭독한 후, 이번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것을 간구하는 합심기도와 민승 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다.

특히 상임총재 이철 목사는 “북한 선수단이 이곳에서 경기를 펼치는데 한반도의 평화가 썩을 수 있기를 기도하자. 적절한 시기에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민승 상임고문은 “서포터즈단이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직접적인 선교나 전도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도 “선교와 전도프로그램은 이미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나 강릉시기독교연합회 그리고 다른 기독교 기관과 단체들이 해왔고 진행계획이 있는 만큼 범국민기독서포터즈단은 응원과 자원봉사 성공기원집회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통성 기도회를 한 다음 행사를 마무리했다.

점심식사 후 진행된 ‘2018평창동계올림픽성공개최 기원 연합대성회’는 공동단장인 강원도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 본부장인 김석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상임고문 민승 목사와 대표총재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상임공동단장 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 당회장), 상임총재 이철 감독(강릉중앙감리교회 담임)의 순으로 인사말씀이 메시지와 영상 메시지로 전달됐다. 상임공동단장인 유순임 목사(민족복음화여성총재)는 강릉으로 이동 중 메시지를 통해 “30년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은 영적 올림픽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허락하신 세계평화를 구축하고 그동안 기도해왔던 민족통일을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올림픽으로 특히 기독 서포터즈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이번 올림픽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리스도 사랑과 평화의 뜻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당부했다.

상임총재인 강릉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이철 감독과 공동총재인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서석근 총회장도 메시지를 통해 “강원도 현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동계올림픽은 역사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와 여러 요인들을 통한 많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그 역할을 여가모인 기독서포터즈 단원들이 함께 평화를 구현하고 그리스도 사랑의 정신으로 성공적 개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훈(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해외집회 인도자 참석치 못한점을 밝히고 영상 인사말을 대신했다. 기독서

포터즈 상임공동단장 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 당회장)도 해외집회인도차 영상을 통한 인사말을 전했다.

공동준비위원장인 한규섭 목사(남동제일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후 강릉중앙감리교회 성가대의 특별찬양이 이어졌으며, 운영공동단장 박수열 목사(광주영광교회)의 상상 7장5절 말씀 봉독에 이어 운영공동총재 이건호 목사(예장중앙총회 총회장)가 설교했다. 이건호 목사는 이날 ‘미스바로 모이라’란 제하의 설교에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30년 만에 하나님에 대한민국의 세 번째로 주신 축복”이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적극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적 뜻을 모아 성취하는 자원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이 안전하고 평화적,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도록 모여 기도하고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 고문인 김재용 목사(예수교대한성결교회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연합성회를 마친 기독서포터즈단은 향후 추진 사업과 관련해 2월 1일부터 현지 중앙감리교회에서 지속적인 성공기원 집회와 기도회 그리고 응원 프로그램 및 서포터즈단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했음을 밝히고 본격적인 마무리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서포터즈단 진행본부에서는 2월 4일주일에는 여의도순복음강릉교회에서 이영훈 대표총재가 인도하는 성공기원 예배가 있을 예정이고 특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선수단과 각국 임원들을 위한 격려 응원 행사도 지원할 계획과 함께 D-10 서울 집회참가 등 각 경기 응원 서포터즈 활동과 본 서포터즈단이 함께 하는 행사를 비롯한 각 기독교기관등과 함께 하는 연합 프로그램등도 협의 추진할 계획 등을 밝혔다.>선언문4면

홍은혜 기자

한교총, 평창동계올림픽 한국교회봉사단 운영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한국교회봉사단’을 운영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백만전도운동본부장 지하수 목사를 실무총괄 사무총장으로 세워 운영하는 봉사단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동계패럴림픽 기간동안 평창과 강릉에서 해외 참가 선수단과 관광객들에 대한 봉사활동과 함께 전도대 운영과 공연을 진행한다.한교총은 지난 총회에서 이를 인준했으며, 1월 16일 소속 교단에 공문을 통해 봉사단(전도대) 파견과 거리 공연(플레이시몹) 파견, 교단별 재정 후원을 요청했다. 봉사단(전도대)에 참여를 원하는 교회 혹은 단체는 15~20명으로 팀을 구성해 1박 2일 기준으로 봉사할 수 있으며, 교통편은 해당 교회/단체가 부담하고 봉사단에서는 숙식과 활동용품을 제공한다.

거리 공연(플레이시몹)은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만 경기장 인근에서 진행하며, 개폐회식 시점은 물론 대회 기간 중 강릉?평창?정선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순회하며 수시 진행한다. 특히 플레이시몹은 전문가 수준의 팀을 초청하여 공연하거나, 청년대학부 활동이 활발한 교회 중 자원하는 교회에서 요청하면 협의 통해 진행편의를 제공한다.

또 응원단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작은 나라들의 경기나 비인기종목 응원을 주목적으로 경기 서포터즈(응원단)를 모집하는데, 응원할 국가의 국기와 응원복, 도구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입장권의 단체구매가 필수다. 이에 필요한 내용은 한국교회봉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한국교회총연합 평창동계올림픽 한국교회 봉사단(전도대) 한교총 사무실 02-744-6200 박용국 기자

구세군 2017 자선냄비, 전년 대비 3억 더 모금 모금된 국민 성금 63억 3600여 만원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은 지난 12월 31일로 2017년 자선냄비 거리모금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선냄비 집중모금 기간(2017년 11월 30일 ~ 12월 31일) 동안 모금된 국민의 성금은 작년보다 5% 증가된 63억 3600여만원으로 집계되었다(거리모금 34억 3400여만원, 기업모금 26억 1100여만원, 온라인과 외부교회모금 등).

구세군 관계자는 2017 자선냄비 집중모금 기간 불어닥친 이용학 사건 등의 기부포비아 영향이 자선냄비 거리모금에도 영향을 미쳐 2016년에 비해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기업과 단체의 온정이 모여져 전체모금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전국의 소외계층을 돌보는 일에 두루 쓰일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 생계 및 건강 증진 사업, 청소년 보육과 양육 및 환경 개선 사업, 미혼모 돌봄과 위기여성 보호 및 자립 사업, 지역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등의 복지 사업에 쓰인다. 한편 오는 2월 6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 앞에서 ‘구세군 자선냄비와 함께하는 2018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3억원어치(10,000포)의 쌀 나눔을 통해 복지시설 생활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홍은혜 기자

“핍박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번 주 중국 예배당 철거, 파키스탄·볼리비아 기독교 새 규제

‘순교자의 소리’의 창립자 리처드 워브란트(Richard Wurmbrand)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수들을 통하여 ‘무(Nothing)’라는 선물을 주실 때 조차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일깨워준다.

지난주, 중국 정부는 한 교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무너뜨렸다. 파키스탄은 기독교 집회를 금지했으며 볼리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협당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에 격분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 속에 폭력성과 그 부당한 면 보게 되기 쉽지만, ‘순교자의 소리’의 창립자 리처드 워브란트 목사는 교회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일깨워준다.워브란트 목사는 공산주의 치하 루마니아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인해 14년 동안 투옥되어 고문을 당했다. 그는 말했다.“(그들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름마저 말이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고 아무것도 잃지 못했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대했죠.”그러나 워브란트 목사는 정부가 기독교인들에게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을 때조차(이번 주 중국, 파키스탄, 볼리비아 정부가 했던 일처

럼), 언제나 그분의 자녀들에게 무(無)에서 유(有)를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인 죄수들〉 모두 형형색색 아름다운 나비, 저자귀는 새, 향기로운 꽃, 양중맞은 아이들이 있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났습니다. ‘잠깐,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무(無)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가치 있는 원리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우주를 만들 수 있어요. 금과 다이아몬드로 그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해내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폴리 현숙 회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이번 주 교회가 파괴되고 종교에 대한 권리가 거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워브란트 목사와 구약 속 요셉의 목소리로 중국, 파키스탄, 볼리비아의 기독교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이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부가 인권 이상의 것을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정부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을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견뎌낼 것이라는 진리를 그들이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한편 워브란트 목사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Tortured for Christ)을 포함하여 기독교 박해에 관한 자료들을 원한다면 www.vomkorea.kr혹은 02-2065-0703으로 문의할 수 있다.

홍은혜 기자

순복음춘천교회, 창립 46주년 기념 ‘2018 신년축복부흥성회’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사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가 창립 46주년을 맞아 신년축복부흥성회를 1월 8~12일 개최했다.

1월 8일(월) 저녁부터 시작된 이번 성회는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주제로 서길원 목사(상계감리교회), 주승현 교수(전주기전대학), 윤태호 목사(JDM 대표), 장준규 장로(전 육군참모총장),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가 선교에 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였다.

첫날 성회에서 서길원牧사는 사도행전 7장 54~60절 중심으로 「스데반처럼」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서 목사는 영적인 복동풍으로 한국을 예수마스로 만드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으며,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섬김 사역인 리메이크 교회 부흥세미나, 비전교회 및 부흥교회 목회 코칭 세미나, 청소년 섬김 사역인 청소년기를부음캠프, 러브투게더(청소년배프), 청소년기도모임 등의 사례로 지역 섬김과 봉사, 헌신에 대하여 나누었다. 서목사는 첫째, 복음을 현장으로 가지고 나아가며 하며(현장영성), 둘째, 죽을 각오로 사는 영성이 있어야 하며(순교적 영성), 셋째,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며, 넷

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해야 한다고 말씀을 선포하였다.

둘째 날 성회에서 간증을 한 주승현 교수는 북측 비무장지대에서 대남심리전 방송요원으로 근무하다 25분 만에 휴전선 돌파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사, 통일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전주기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명지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 교수는 로마서 9장 1~3절 중심으로 「최근 북한 실상과 통일선교준비」에 대해서 강의와 간증을 하였다.

셋째 날 성회에서 윤태호 목사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교회」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윤 목사는 예수제자운동(JDM) 대표, 한국제자훈련원(KDTI) 원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섬기고 있는 JDM은 1977년 춘천에서 시작되었으며 40년 동안의 제자운동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을 일으켜온 선교단체.

특별히 말씀 중심의 소그룹과 강한 훈련을 통해 젊은이들을 훈련하여 선교에 헌신하도록 이끌고, 대학생 사역단체로서 유일하게 선교사 발굴과 훈련, 파송, 관리에 이르는 선교의 전 과정을 갖고 있다. 현재 국내 115대학에서 100여명의 사역자, 전 세계 28개국 164캠퍼스에서 116

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다.

넷째 날 성회에서 간증을 한 장준규 장로는 제46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전역하였으며, 육사 36기로, 대통령 경호실, 육군 제2보병사단장, 육본 정보작전참모부장, 육군 특수사령관, 육군 제1야전군 부사령관,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 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군선교를 감당하였다. 장 장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군생활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군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간증하였다.

마지막 날 성회에서 김한호 목사는 사도행전 6장 1~7절 중심으로 「전문성과 고백성」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김 목사는 디아코니아로 세상을 바꾸는 목회,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10년, 미국에서 10년 동안 이민교회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얻은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한국교회가 섬김(디아코니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작은 힘을 보탬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었다.

순복음춘천교회 이수형 담임목사는 “신년축복부흥성회를 통해 성도들이 주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선교의 관점과 가치관이 넓어져서 감사하며, 하나님



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과 선교적 영성으로 살 속에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복음춘천교회는 사랑행복축제, 택시데이, 사랑의 무료 진료, 문화예술축제, 해민사랑의 집(무료 급식), 지역교회 및 불우이웃 사랑의 쌀 전달, 춘천시민 초청 탁구대회, 지역행사 및 군경, 하나원 섬김, 사랑행복축제 수익금 및 물품 춘천시 전달, 정기연주회 등 다양하게 지역

사회 발전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위한 청년전도를 실천하기 위하여 군선교사역으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논산 육군훈련소 진중침례식과 2012년부터 매년 21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을 섬기고 있으며, 21사단 사랑의 독서카페 기증, 군인교회 부흥회 및 기도회 인도, 사랑의 윤차 및 부활절 계란 나누기 운동 등으로 헌신하고 있다.

춘천시에서 수탁 받은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을 통하여 춘천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며, 어르신들이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선교사역으로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선교 비전을 품고 있으며, 수많은 현지 사역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선교센터 건립에도 열정을 쏟으며 해외 성회를 섬기고 있다.

조은식 기자

제30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 열린다

특별히 구별된 언약의 세대 목회자자녀들만을 위한 축제가 개최된다. 제30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가 오는 2월 19일(월) ~ 21일(수)까지 경기도 평택 오산성은동산에서 개최된다.

‘제30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는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와 목회자자모신문(발행인 설동욱 목사)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CTS기독교TV, CBS, febc공동방송, 국민일보, 예경교회가 공동 후원하여 진행된다.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사명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이다. 모든 부모들과 같이 목회자도 목회자이기 전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마음은 그 어느 부모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목회에 있어 성공 여부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목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면 목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목회 성공이 곧 자녀 교육의 성공은 아니

다.

목회가 잘 되어도 자녀 교육에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목회와 함께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목회자자녀는 목회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한 성도와 같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회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상처가 적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목회자 가정이 그러하듯이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현실 때문에 오는 아픔이 있어서 힘든 성장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자모신문이 주최하는 제30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는 목회자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아픔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가장 존귀한 사명으로 그들을 인도한다.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으며, 마음껏

행복해하며 같은 상황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이 서로 만나서 마음껏 대화하며 모든 상처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목회자자녀세미나에 참석한 생수교회 유충성 자녀는 “나의 아픔은 아프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외롭고 슬픈 아이들이 많아서 부끄러웠지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세미나였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신촌교회 이희원 자녀는 “이제 목회자 자녀인 것이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목회자 자녀로 나를 위해 세운 계획이 궁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 주신에 감사하다”라고 했다.

여명교회 조문영 자녀는 “너무 좋았고 행복했다. 내가 웃으면서 울면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나의 삶에 쌓여있던 것들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다”라고 했고 호산나교회 박은찬 자녀는

“말이 필요 없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만족한다”라고 했으며 동인교회 정민수 자



녀는 “정말 너무 행복했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제30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에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강사는 피종진 목

사(남서울중앙교회), 설동욱 목사(예경교회), 박태남 목사(벨엘교회), 문강원 목사(원천교회), 천관웅 목사(뉴사운드교회), 임우현 목사(정검다리 선교회 대표), 다니

엘김 선교사(JGM 대표), 김성현 목사(세계비전교회), 강은도 목사(광교푸른교회), 하귀선 선교사(세계터미널선교회) 등이다.

이나래 기자

월드비전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MY KIDS 캠페인 참여방법!

-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 2 모바일 웹 mykids.wv.or.kr로 접속해주세요.

2인칭 루트를 제시함

- 1 월드비전 My Kids와 함께 아동 영아가 담긴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2 아동과 연지를 교류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아들이 사는 지역을 알려주어 아동의 경제적 도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한 1회 아동에게만 보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한 연차

- 1 월 5만원의 후원금은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의 영양, 보건, 교육, 교육 및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 2 아동후원은 한 아이의 배고픔을 넘어 꿈을 이루고 한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자유, 사랑, 관용, 정의, 평등, 차별 개념의 젠더주의적 왜곡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VI)



살롬나비 상임대표, 기독교학술원장 김영한 박사

0. 머리말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동성애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동성애를 인권과 결부시킨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소수자로서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박해와 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점령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유엔의 보편인권 선언과 결부시켜 자신들의 주장을 인권 차원에서 정당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성찰해보면 동성애는 성적 중독이며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들은 동성애가 성중독(性中毒)이라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비판을 가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는 역차별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 사랑, 관용, 정의 평등, 차별 등 인권과 연계된 개념들이 젠더주의적으로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자유 개념의 사유화(私有化): 자유방임적 무책임적 자유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전통적인 자유 개념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한다. 전통적 의미에서 자유란 외부적 강제 없이 양심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예전 군부 독재 시절 정치적으로 유신헌법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 요구는 다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대변하는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공산국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의 중국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 요구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면서 8년 감옥에 있었던 그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었다.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 요구는 사회적 다수가 가져야할 공동체의 자유와 진리에 대한 양심의 소리와 책임감을 나타낸다. 그리고 사회적 다수들이 인정하는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공동선(共同善)에 기여하는 자유다.

이에 반하여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이러한 공동체에 기여하는 선과 책임에서 벗어난 주관적인 기분(subjective whim)을 주장한다. 이들은 자유에 따르는 책임은 말하지 않고 “당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라.” 즉 자유방임(laissez-faire)만 주장한다. 개인적인 기분으로 환원된

자유 개념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의 결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러한 자유는 진리에 정향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욕망에 의하여 지배된다. 이들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남’이라는 선형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보편적인 성적 질서와 관련하여 명백한 진리(생물학적 남자와 여자로 태어남)를 거부하는 것이다.

독일의 반동성애 여성 운동가 가브리엘 쿠비(Gabriele Kuby)가 지적하는 것처럼 가족이란 마음속 갑갑함을 채워주는 공간이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따른 신실한 사랑은 생명을 가져온다. 동성애자들은 성욕을 충족하겠다는 욕망을 앞세운 젠더 이데올로기가 법률적 강압을 통해 기독교 가치관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최종 목표는 가정의 해체다.(쿠비, ‘동성애 쓰나미’ 맞서 전통가정 소중함 외쳤다. ‘서울 글로벌 패밀리 컨벤션’ 입력 : 2017-06-05 00:01, 글=백상현 기자, 사진=신현가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59553&code=23111111&cp=nv) 쿠비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같은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성적 쾌락의 노예로 만들며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성적 문란함은 인간 정체성의 파괴를 초래하고 사회의 성적 타락은 새로운 동성애 전체주의를 일태한다.

이러한 자유, 진리와 선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난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의 자유 주장은 타자에 대한 희생을 요구함으로써 자신과 공동체가 누리는 자유의 축소를 초래한다. 한 개인의 동성애의 행동은 그 가정이나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유발함으로써 그가 속한 공동체의 정서와 질서가 훼손된다. 17세기 영국 정치 철학자 홉스(Thomas Hobbes)의 말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야기 된다. 이러한 사회는 정상적인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2. 사랑 개념의 성적 탐닉화: 이성적 관계가 동성적 관계로 변형
하나님은 인간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

물학적으로 다른 성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놀랍게도 뇌와 신체 구조 등에서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둘은 성(性)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훗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을 때 좋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에서 이성애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생산하고 인류의 존속을 가능하게 된다. 이성애는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서로 인격적으로 보완하도록 하여 참 인간 존재에 이르도록 성숙하게 한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에게 천부적으로 심겨진 사랑의 본연질서이다.

동성애자들의 사랑 개념은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보다는 성적 탐닉(耽溺)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므로 ‘동성애자의 사랑을 인정해야 한다’는 진보신학자들의 주장은 바로 다고 볼 수 없다.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사랑은 수백명의 성관계 파트너와 함께하는 문란한 성적 행동에 불과하며” “극단적 성욕을 추구하다보니 정신착·육체적 질병을 앓고 평균수명이 일반인보다 20년가량 짧고 자살률도 높다.” 2017년 6월 한국을 방문한 쿠비가 피력한 것처럼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사랑’은 신실함, 헌신, 생명이 라는 가정과 사랑의 숭고한 가치를 절대 충족시키지 못 한다.” 동성애자들은 “성욕 해소에 집착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성을 결정한다’며 자신이 창조주 역할까지 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떠나 욕망의 노예로 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간 존재를 무시뜨리는 행위일 뿐”이다.결혼이 갖고 있는 속성이란 하나님이 간에게 정해주신 것으로 신성한 것이다. 건강한 가정은 자녀가 한 남성, 한 여성으로 성장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돌보는 데 있다.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결혼 후 손주라는 생명을 부모님께 보 여드림으로 행복감을 느낀다. 쿠비가 피력하는 바같이 “가족이란 마음 속 갑갑함을 채워주는 공간”이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실한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가져온다. 이같은 사랑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가치”다. 전통적 가정과 결혼을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3. 관용 개념의 사유화: 관용이란 선과 악의 구분을 폐지, 모든 것을 선으로 선언.

관용이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다른 견해와 태도에 대하여 참고 감수하는 것을 말한다. 관용이란 모든 것을 선이라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또한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볼테르 등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주로 절대 군주 통치자들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변호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이 관용을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폐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들에게 진리가 존재한다는 순수한 선인 자체는 불관용(intolerance)으로 간주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관용이라는 진리를 가르쳤으나 비진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는 십자가 사랑으로 모범을 보여주었고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관용이란 이러한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관용과는 거리가 멀다.

진정한 관용이란 비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관용이란 자기와 다른 생각과 신앙에 대하여 이를 정죄하지 않고 다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비진리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며, 관용이라 하여 죄된 행위(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폭력, 마약 등)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양심이 강요되지 않으며 거짓이 묵인되지 않아야 한다. 예수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에 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1a-32). 그런데 이들은 진리를 박멸하고자 한다.4. 정의 개념의 왜곡: 정의란 소수자 요구 관철하는 것.

정의란 권리와 의무의 정당한 주고 받음을 통해서 개인이나 기관의 사회적 기본구조에 대한 관심의 균형을 말한다. 정의는 공평한 일은 공평하게, 불공평한 일은 불공평한 것으로 다루어, 모든 일이 공평하게 다루는 것이다. 불공평한 일이 공평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그 결과는 불의(injustice)다. 정의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모든 것을 각기에 따라서 대하라.’ ‘각자에게 해당하는 몫을 주라’(suum cuique)는 보편적인 법적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정상인들(대다수인 이성애자들)을 자신의 변덕에 종속시키려는 비정상인들(성소수자인동성애자 등)에 의하여 위협되고 있다.

극단한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LGBT) 행동가들에게 정의란 각 사람이 그의 젠더, 성적 정체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정의란 동성애자들이 게이(남성 동성애자),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결혼하고 생명기술(biotechnology)을 사용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올바른 정의가 아니라 성

정치의 정의다. 이러한 성정치는 국가 권력이 성소수자의 요구를 강요하여 일반 성다수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는 것이다.

오늘날 게이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질병 에이즈(AIDS, 후천면역결핍 증후군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감염자의 1년 의료비는 3천만원이라고 추정하며 이들의 의료비는 3천억이며 이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한국에서는 에이즈 감염이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증거로는 전체 감염인 중 남자가 9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질병 치료비 부담에 있어서 정상인들의 질병 치료비 부담보다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불공평, 즉 객관적으로 다른 것(동성애)을 공평한 것(정상적인 것)으로 다루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법체계가 세워진 정의 원칙의 도착(倒錯, reversal)이다.5. 평등 개념의 왜곡: 상대적 평등 무시 절대적 평등 요구

평등(equality)은 구성원들 가운데 일하는 기회의 균등과 일한 만큼 동일한 보수(報酬)가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등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비교의 제3자(tertium comparationis)이다. 비교의 제3자에 의해 두 대상이나 사람이 비교되어서 같은 점과 차이점이 결정된다. 결혼이란 두 파트너 사이의 이성(異性)적 끌림이 있어야 하며, 후손을 생산하여 가족을 만드는 능력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극단한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LGBT) 행동가들은 젠더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나타내는 영문 대문자(LGBT)는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LGBTAIQ라는 용어는 본래의 LGBT에서 무성애자(Asexual), 간성(間性)(Intersex), 아직 자신의 성적체성, 성적 지향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Questioner)을 더한 것이다. 인도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히즈라를 H로 표기하여 포함하기도 한다. LGBTAIQOC는 위

의 용어에 이성복장착용자(crossdresser)를 추가시킨 용어이다. 한국에서도 퀴어 축제 등의 영향으로 최근 동성결혼 등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범성애자(opensexual, pansexual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하숙방의 여성, 부엌의 남성, 갈비 속의 태아들의 이상(理想)에 따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실체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체적 평등 주장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생물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존재하는 성별(性別) 차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관계와 동성끼리의 성관계는 구별되어야 한다. 부부관계가 아닌 남성과 여성이 성평등 명목으로 같은 잠자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남성끼리 그리고 여성끼리 성관계가 성평등이라고 할 수 없다. 동성 간의 성관계가 부부 아닌 이성 간의 성관계처럼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위례별초등학교 영어교사인 최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소수자들의 축제 영상을 보여 주며 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다. 최 교사의 자리 주변 칸막이엔 무지개색 깃발과 포스터 등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남자는 다 짐승? 그렇다면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의 몸이 아닌 목줄입니다’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도 있었다. 최 교사는 지난 5월부터 학교 내 ‘페미니즘 북클럽’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교감을 포함해 이 학교 교사 58명 중 21명이 가입했다. 최 교사와 함께 이 동아리 활동을 한 다른 교사들도 아이들을 상대로 성평등 교육에 나섰다고 알려졌다.(속 깊은 뉴스) “혁신학교 수업 재량권 뒤편... 편향된 성평등 교육,” 최이라 기자 김은중 기자, 입력 : 2017.08.26 03:10; 조선일보 A10,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6/2017082600076.html) 최 교사는 2017년 7월 17일 6학년 3개반을 가르치면서 수업 시간 내내 자신이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퀴어(queer-성소수자) 축제(7월 15일)에 참여해 찍은 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한 얘기를 했다. 최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발행인 김광수	일반편집장 장세규	교계편집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